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일본/도쿄지사)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2022년 07월]

1. 수입시 불필요한 서류 동봉으로 인한 검역소 지적사항

- 일본 수출시 제품 상자 내에 제품 안내 설명서나 레시피 전단지 등을 동봉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최근 일본 검역소 및 세관에서 동봉된 전단지 등에 대해 실제 제품유형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명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 샘플 수출시 바이어에게 친절히 안내하는 의미로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서, 규격서, 레시피 등을 함께 넣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이 수출하는 본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에 표기된 규격기준 내용과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검역관이 본래 식품규격과 상이함을 지적

2. 검역소 통관시 본품과의 상이점 지적 사례

- 대일수출품목명 : **주스(상온제품)
- 일본식품규격기준 : 청량음료수 기준 적용
- 샘플내용 : 대일 신규 시험수출 통관을 위한 샘플 송부
- 주요 경위
 - 수출업체인 A사는 **주스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샘플통관을 추진하면서 수출용 제품 상자에 제품 안내용 설명서(한국어)를 동봉하였음
 - 검역소 직원이 보세창고에서 현물 확인 작업을 하면서 상자 안에 동봉된 전단지를 발견하고 해당 내용을 번역 판독함
- 지적내용
 - 본 제품은 일본의 식품규격기준상 청량음료수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및 기준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검역관이 발견한 전단지에는 해당 제품이 각종 요리의 <소스>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주목
 - 만약, <소스>로 사용할 경우 별도 소스류에 대한 기준치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 수입식품신고 내용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있어 이에 대한 수입업체의 해명서를 요구해 옴

※ 자료원 : 도쿄지사(현지화 사업 업체 지원 내역)

3. 시사점

- 샘플 송부시에는 반드시 패키징리스트에 기재된 내역과 동일하게 화물이 일치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서류 등은 동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특히, 팜플렛, 전단지, 종이가방 등은 별도 수출품으로 하던지 국제우편으로 별송 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본 제품이 신속히 통관이 되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패키지에 기재된 한국어 라벨링도 일본어로 번역하여 감시하고 있음으로 제품에 사용된 성분과 라벨이 불일치할 경우 지적사항이 되고 있음으로 주의가 필함
 - 일본의 경우 판매시에 일본어 수입자 표기를 표기하는 조건임에 따라 수입시에 일본어 라벨이 없어도 통관은 가능함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신선 청고추 잔류농약 위반 사항 발생

- 위반품목 : 신선 청고추
- 수출자 : WOOSANG CO.,LTD.
- 수입자 : 문혜숙
- 위반성분 : 헥사코나졸 0.04ppm검출/ 기준치 0.01/
 - 동성분은 현재 한국산 신선청고추에 대해서 명령검사 상태 성분임
- 검사종류 : 명령검사(매회 수입시 마다 검사해야 됨)
- 위반발표일 : 2022.07.07
- 향후처리 : 전량 창고 보관 상태로 폐기 추정

※ 자료원 :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https://www.mhlw.go.jp/content/000960574.xls>

2. 시사점

- 한국산 청고추는 현재 헥사코나졸 등 3개 농약 성분에 대해 매회 수입 시 마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이상 없을 경우에 한해 통관이 허가됨으로 사전에 일본 잔류농약기준치에 맞추어 이상 없는 제품만을 수출하도록 주의가 필요시 됨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2.7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모두 69건이 발생함 (식기류 제외)
 - 7월의 한국산 식품 위반사례는 분말청량음료에서 세균수 초과, 컵라볶이에서 기준치 이상의 산가 검출로 인한 위생 위반 2건, 신선청고추에서 잔류농약 위반 1건으로 계 3건의 위반이 발생함
 -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 및 항균제 등 위반사례가 13건(18.8%), 아플라톡신 위반이 16건(23.2%), 대장균 균 양성 및 세균수 기준치 초과 등 위생위반이 32건(46.4%), 첨가물 위반이 7건(10.1%), 기타 1건(1.4%) 으로 나타나 위생 위반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함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7월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14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위반건수가 제일 높았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 중 20.3%를 차지함
 - 땅콩류에서 아플라톡신 위반 3건, 냉동 야키아나고와 야키토리에서 대장균균 검출, 냉동 문어양배추카츠에서 E.coli 양성, 황산제일철에서 pH부

적합, 멍쌀에서 곰팡이 발생 등 위생 위반 5건, 양파에서 잔류 농약 위반 3건, 레토르트 야채 조정품에서 첨가물 위반 2건, L라이신L글루타민 산염에서 함량 부적합 등 계 14건의 위반이 발생함

○ 인도네시아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냉동제품의 새우, 연어, 황다랑어에서 대장균군 검출 및 냉동 새우에서 E.coli 양성 등 위생위반 8건, 향신료 넛맥에서 아플라톡신 위반 1건 등 계 9건의 위반이 발생

○ 미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생 아몬드 등 견과류 및 옥수수에서 아플라톡신 위반 7건, 옥수수에서 곰팡이 발생으로 위생 위반 1건 등 계 8건의 위반이 발생

○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냉동 잭프루트에서 대장균군 양성으로 위생 위반 1건, 냉동의 새우, 채소, 카옌 고추에서 잔류 농약 위반 3건, 파이류, 조미료 등 2건의 첨가물 위반, 기타 냉동 카사바에서 시안화합물 검출 1건 등 계 7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함

○ 태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시럽절임 코코넛에서 첨가물 위반 2건, 신선바나나에서 잔류 농약 2건, 멍쌀에서 곰팡이 발생, 부패 및 이취 등의 위생 위반 2건 등 계 6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표1>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

국가명	위반건수	위반율	잔류농약 및 항균제등	아플라 톡신	위생	첨가물	기타
중국	14	20.3	3	3	5	2	1
인도네시아	9	13.0		1	8		
미국	8	11.6		7	1		
베트남	8	11.6	2		6		
태국	6	8.7	2		2	2	
한국	3	4.3	1		2		
기타	21	30.4	5	5	8	3	0
합 계	69	100.0	13	16	32	7	1
비율(%)			18.8	23.2	46.4	10.1	1.4

<표2>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



※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